

『黃帝內經』의 治療 理法에 關한 研究

유재경·윤창열*

『黃帝內經』의 治療 理法에 關한 研究

劉宰暻·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內經』在確立治則後具體提示了治療理法，其大體可分爲四種理法。

首先，應根據邪氣侵入之深淺、傳變之順序、病位之表裏，詳查其陰陽表裏內外而分別施行各自不同領域的治療；對於有無表病或裏病的診斷問題上，一般當先查表病之有無。

其次，強調了隨陰陽盛衰而顯現變化的寒熱溫涼症候的調節，而寒熱的具體情況又有虛實之分，故當詳查具體病症的陰陽虛實情況。同時，還提示了在扶正祛邪治則下施行補瀉之法的具體方法，其中補法用於正氣(氣血)虛的情況，瀉法則用於邪氣實的情況。具體的講，補法包括補氣、益血、滋陰、壯陽等法，瀉法包括通氣、散火、逐水、開鬱等法。

另外，尚有正治法與反治法，正治法用於病性與藥性相逆的病症，屬於比較單純的情況，而反治法則用於藥性與病之假象相從的病症，屬於病情比較複雜和嚴重的情況，但二者皆以把握病情的本質，除去根本病因為目的，故皆屬‘治病求本’之治療原則下的治療理法。

綜合『內經』所提示的治療理法，可看出在諸多辨證方法當中首重陰陽、表裏、寒熱、虛實之八綱辨證。對此，李梴在『醫學入門·雜治賦』中談道：“百病難逃乎八要，經曰病有八要，不知其要，病將安去。表裏寒熱虛實邪正而已。”而程國彭在『醫學心悟·寒熱虛實表裏陰陽辨』中亦說道：“病有總要，寒熱虛實表裏陰陽八字而已。病情既不外此，則辨症之法，亦不出外。”可見二人都在強調和說明『內經』的治療理法。

關鍵詞：黃帝內經，治療理法，補法，瀉法，正治法，反治法，陰陽、表裏、寒熱、虛實，八綱辨證。

I. 서론

『黃帝內經』(이하 『內經』으로 略稱)의 내용은 陰陽五行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운동 변화를 거치고, 五臟六腑와 經絡을 통한 氣血의 順行으로 생명 활동을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 이론으로부터 養生, 解剖, 生理, 疾病에 대한 病理, 診斷方法,

治療에 있어서의 治療 原則과 治療 理法, 그리고 각종 療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실제 臨床에서 이러한 『內經』의 이론들은 그대로 적용되며, 그 중에서 治療에 대한 부분은 臨床에서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治療 原則’이란 疾病을 治療하는 大原則을 말하며 治法을 指導하는 데 이용된다. 또한 ‘治療 理法’은 治療의 大原則 下에 具體적으로 適用되는 理法을 말한다. 『內經』에서 疾病의 治療 原則과 理法에 關한 論해 擲은 部分은 『內經』의 理論體系에서 중요한 部分으로서 古今의 學者와 醫家들에게 重시되는 바이다.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ency@dju.ac.kr
· 채택일 : 2007년 12월 1일

治療理法(이하 治法으로 略稱)과 治療原則은 서로 다른 概念으로 둘은 서로 구분되며 또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治療 原則은 疾病 治療에 있어 總體的인 原則을 가리키며 各種 治法의 운용에 있어서 普遍的인 意義를 지닌다. 治法은 治療原則下에서 病證에 대한 구체적인 立法을 말하며 具體的인 療法(砭石療法, 導引按蹠療法, 情志療法, 飲食療法, 醪酒療法, 藥物療法 등)보다는 上位 概念이다.

그리고 治法의 概念은 두 가지 層次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各種 病證에 대한 總體的인 立法으로, 예를 들어 表證에 汗法을 쓰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總體的인 治法下에서 확립되는 具體的인 治療法으로, 예를 들어 汗法 中 辛溫發汗, 辛涼發汗 등을 가리킨다. 『內經』에서 論述하고 있는 治療 理法은 이미 汗, 吐, 下, 和, 溫, 清, 消, 補의 모든 方面을 이미 섭렵하고 있으며, 단지 ‘和法’에 대해서만 明確하게 논술되어 있지 않다¹⁾. 『內經』에서는 크게 表裏異治, 寒熱溫涼의 調和, 虛實에 따른 補瀉, 正治와 反治(逆治와 從治) 네 가지 治法을 提示하고 있다.

II. 본 론

1. 表裏異治를 제시

邪氣가 侵入함에는 깊고 얕음이 있으며 傳變에는 순서가 있고 病位는 表와 裏가 있음을 앞의 早期治療에 관해 論함에 있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治療에 있어서는 또한 마땅히 表裏先後의 차이가 있다. 『內經』에서는 人體를 表裏로 區分하여 각각 다르게 治療를 하고 있음을 아래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原文】

『素問·熱論』

○ 其未滿三日者는 可汗而已오 其滿三日者는 可泄而已니이다 (疾病이 아직 3일이 안 된 者는

發汗하여 治療할 수 있고, 病이 이미 3일이 된 者는 邪氣를 瀉하여 治療할 수 있다.)

『素問·評熱病論』

○ 帝曰有病이 身熱하고 汗出煩滿에 煩滿이 不爲汗解하니 此爲何病이니잇고 岐伯이 曰汗出而身熱者는 風也오 汗出而煩滿不解者는 厥也니 病名曰風厥이니이다 (黃帝가 말하기를 身熱, 汗出, 煩滿한데 煩滿이 汗을 내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병입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汗出하고 身熱한 것은 風이고 汗出하며 煩滿이 풀리지 않는 것은 厥입니다. 病名을 風厥이라 합니다.)

『素問·調經論』

○ 岐伯曰 五藏者는 故得六府與爲表裡니라 經絡支節은 各生虛實하니 其病所居에 隨而調之하라 病在脈하면 調之血하고 病在血하면 調之絡하고 病在氣하면 調之衛하고 病在肉하면 調之分肉하고 病在筋하면 調之筋하고 病在骨하면 調之骨하라 (五臟은 六腑를 얻어 表裏를 이룬다. 經絡肢節은 각각 虛實을 生하는데 그 병이 머무르는 곳을 따라 그것을 조절한다. 病이 脈에 있으면 血을 조절하고 병이 血에 있으면 絡脈을 조절하고 병이 氣에 있으면 衛氣를 조절하고 병이 肉에 있으면 分肉을 조절한다. 병이 筋에 있으면 筋을 조절하고 병이 骨에 있으면 骨을 조절한다.)

『素問·至眞要大論』

○ 調氣之方은 必別陰陽하고 定其中外하며 各守其鄉하라 內者內治하고 外者外治하라 (調氣하는 방법은 반드시 陰陽을 구별하고 中外를 정하여 각각 그 근원을 지켜 內者는 內治하고 外者는 外治한다.)

○ 帝曰 善이라 病之中外何如니잇가 岐伯曰 從內之外者는 調其內하고 從外之內者는 治其外하고 從內之外에 而盛於外者는 先調其內하고 而後治其外하며 從外之內에 而盛於內者는 先治其外하고 而後調其內하며 中外不相及하면 則治主病이라 (黃帝가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病의 中과 外는 무엇인가? 岐伯이 말하기를 內로부터 外로 傳變된 것은 그 內를 조절하고 外로부터 內로 傳變된 것은 外를 다스립니다. 內로부터 外로 傳變

1) 王洪圖, 內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218.

되었을 때 外에서 盛하면 먼저 그 內를 조절한 후에 그 外를 다스리고 外로부터 內로 傳變되었을 때 內에서 盛하면 먼저 그 外를 다스린 후에 그 內를 조절합니다. 中外가 서로 傳變되지 않았으면 主病을 치료합니다.)

『靈樞·熱病』

○ 熱病三日에 而氣口靜이나 人迎躁者는 取之 諸陽하여 五十九刺하여 以寫其熱而出其汗하고 實其陰以補其不足者라 身熱甚하나 陰陽皆靜者는 勿刺也라 其可刺者는 急取之하여 不汗出則泄이라 (熱病 3일에 氣口脈이 靜하나 人迎脈이 躁動하면 여러 陽經의 59개 穴에 침을 놓아 그 熱을 寫하고 汗을 내어 그 陰을 實하게 함으로써 不足한 것을 補한다. 身熱이 심한데 陰脈이나 陽脈이 모두 靜하면 刺針하지 말라. 刺針할 수 있는 사람은 급히 침을 놓아 汗이 나지 않으면 邪氣를 瀉해야 한다.)

○ 熱病에 先膚痛하고 室鼻充面하면 取之皮니 以第一鍼으로 五十九니이다 苛軫鼻하면 索皮于肺하고 不得索之火니 火者는 心也라 (熱病은 먼저 膚痛, 室鼻, 充面(얼굴이 붓는 것)하면 皮를 취한다. 第一鍼으로 59개 穴에 침을 놓는다. 코에 小疹이 생기면 피부와 배합되는 肺에서 취해야 하고 火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데 火는 心이기 때문이다.)

○ 熱病에 身重骨痛하고 耳聾而好瞑하면 取之骨이니 以第四鍼으로 五十九刺니라 骨病不食하고 齧齒耳青하면 索骨于腎하고 不得索之士니 土者는 脾也라 (熱病에 身重, 骨痛, 耳聾, 잠자기를 좋아하면 骨을 취한다. 第四鍼으로 59개 穴에 침을 놓는다. 만약 骨病不食하고 이를 갈며 귀가 퍼렇게 되면 骨과 배합되는 腎에서 취해야 하고 土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데 土는 脾이기 때문이다.)

『靈樞·五色』

○ 病生於內者는 先治其陰하고 後治其陽하니 反者는 益甚니라. 其病生於陽者는 先治其外하고 後治其內하니 反者益甚이라 (病이 內에서 生하면 그 陰은 먼저 다스리고 그 陽을 후에 다스린다. 반대로 치료하면 병세가 더욱 심해진다. 그 병이 陽에서 生하면 그 外를 먼저 다스리고 후에

그 內를 다스린다. 반대로 치료하면 병세가 더욱 심해진다.)

【考察】

表裏단 疾病의 內外, 病勢의 深淺, 病證의 輕重 등을 判別하는 2개의 綱領이다. 內外的 구분은 人體의 皮毛, 經絡이 外가 되고 表에 속하며, 臟腑는 內가 되고 裏에 속한다. 이를테면 外感의 溫熱病에서 邪氣가 衛分에 있는 것은 表에 속하며, 病勢가 비교적 얇고 가볍다. 만약 邪氣가 좀더 깊이 들어가 氣分이나 營分, 血分, 또는 臟腑로 傳入하면 裏에 속하며, 病勢가 비교적 重하고 깊다.

表證과 裏證의 判別은 病變의 부위에 따라 구분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症候의 특징으로서 寒熱, 舌苔, 脈象 등을 첨가해서 구별해야 한다. 表와 裏는 상대적이며, 이들 사이에는 또 상호 연계되어 일정한 조건에서 서로 轉化할 수 있으며, 아울러 寒, 熱, 虛, 實과 복잡하게 섞여 설명할 수 있다. 『內經』에는 질병 治療에 있어 表裏異治를 제시하고 하고 있다.

1) 表裏異治 理法을 提示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調氣之方은 必別陰陽하고 定其中外하며 各守其鄉하라 內者內治하고 外者外治하라”고 하여 治療에 있어 陰陽表裏 內外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영역에서 치료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本篇의 “從內之外者는 調其內하고 從外之內者는 治其外하고 從內之外에 而盛於外者는 先調其內하고 而後治其外하며 從外之內에 而盛於內者는 先治其外하고 而後調其內하며 中外不相及하면 則治主病이라”는 구절은 疾病의 傳變 過程 중 어디에 더 重點을 두고 治療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 또한 治療를 施術함에 있어서의 表裏先後를 闡明하고 있다.

그리고 『素問·調經論』은 病의 位置에 따른 治療의 層次에 대해서 더욱 세밀히 논하고 있다. “五藏者는 故得六府與爲表裡니라 經絡支節은 各生虛實하니 其病所居에 隨而調之하라 病在脈

하면 調之血하고 病在血하면 調之絡하고 病在氣하면 調之衛하고 病在肉하면 調之分肉하고 病在筋하면 調之筋하고 病在骨하면 調之骨하라”에서 “隨而調之”란 鍼藥에 대해 精密하게 운용하여 빠른 治療 效果를 얻으며 病期를 短縮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²⁾

2) 表裏異治 理法의 具體的 운용

‘表裏異治’或 層次를 나누어 治療하는 것은 특히 外感疾病의 治療에 있어 가장 적합하게 적용된다. 『素問·熱論』에서는 傷寒熱病을 치료함에 있어 이 治法을 운용하고 있는데 傷寒熱病의 傳變에 관해 살펴 보건데 一日太陽, 二日陽明, 三日少陽, 四日太陰, 五日少陰, 六日厥陰의 순서를 가지고 앞의 三日은 그 熱이 經에 있고 表에 있으며, 뒤 三日은 熱이 臟으로 들어가 裏에 있는 것이다. 그 治療에 관해서는 “其未滿三日者는 可汗而已오 其滿三日者는 可泄而已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汗’은 땀을 取하는 것이며 ‘泄’은 熱을 泄하는 것으로 發表清裏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원래 用鍼을 가리키는데 後人들이 藥物을 통한 汗, 下 兩法으로 확대시켰다.

『靈樞·熱病』은 모든 熱病 時에 먼저 汗法을 取하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熱病三日에 而氣口靜이나 人迎躁者는 取之諸陽하여 五十九刺하여 以寫其熱而出其汗하고 實其陰以補其不足者라 身熱甚하나 陰陽皆靜者는 勿刺也라 其可刺者는 急取之하여 不汗出則泄이라”, “熱病에 先膚痛하고 室鼻充面하면 取之皮니 以第一鍼으로 五十九니 이다 苛軫鼻하면 索皮于肺하고 不得索之火니 火者는 心也라”, “熱病에 身重骨痛하고 耳聾而好瞑하면 取之骨이니 以第四鍼으로 五十九刺니라 骨病不食하고 齧齒耳青하면 索骨于腎하고 不得索之士니 土者는 脾也라” 이 중 ‘取之諸陽’, ‘出其汗’, ‘取之皮’는 모두 解表法을 말하며 ‘不汗出則泄’, ‘取之骨’, ‘索骨于腎’은 모두 裏熱을 泄하는 것, 즉 攻裏法을 말한다. 熱病을 다스리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法은 先後를 나누어 시행한다.

이 두 가지 治法은 『素問·評熱病論』의 風厥의 治療에도 적용된다. “帝 曰有病이 身熱하고 汗出煩滿에 煩滿이 不爲汗解하니, 此爲何病이니잇고. 岐伯이 曰汗出而身熱者는 風也오 汗出而煩滿不解者는 厥也니 病名曰風厥이니이다”라 하고, 이어서 “表裏刺之하고 飲之服湯이니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같은 病의 太少을 論하면서 刺鍼에 있어 表裏 兩經으로 나누어 施行할 것을 말하였다. 비록 “表裏刺之”라 하여 같이 刺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表裏異治의 基礎위에 배합되는 원리이며 또한 治療에 있어도 層次를 두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³⁾

『內經』의 이러한 表裏異治의 기초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外邪의 성질에는 寒熱의 구분이 있고, 衛氣가 外邪에 저항하는 능력 역시 強弱의 차이 있으므로 실제 응용 있어서는 表證의 寒熱, 虛實의 구분을 要한다. 裏證도 마찬가지이다.

표 1. 表證의 寒熱虛實鑑別⁴⁾

表證 鑑別	主要鑑別症狀	施治原則
表 寒	惡寒明顯, 頭痛身體痛重, 苔薄白潤, 脈浮緊	辛溫解表
表 熱	惡寒不明顯, 咽紅咽腫, 苔薄而乾, 脈浮數	辛涼解表
表 虛	有汗, 脈浮緩	榮衛調和
表 實	無汗, 脈浮緊	辛溫解表

표 2. 裏證의 寒熱虛實鑑別⁵⁾

裏證 鑑別	主要鑑別症狀	施治原則
裏 寒	面色蒼白, 畏寒肢冷, 口不渴 또는 渴喜熱飲, 腹痛喜溫, 小便清長, 大便溏薄 또는 清稀, 舌淡白 또는 白滑, 脈沈伏 또는 沈遲	溫 法
裏 熱	面色紅 또는 潮紅, 發熱, 惡熱, 煩躁, 口渴喜冷飲, 小便短赤, 大便秘結 또는 瀉下穢臭 또는 挾膿血, 舌苔黃, 舌質紅絳, 脈數	清 法
裏 虛	疲倦無力, 短氣, 音低, 眩暈,	補 法

2)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 1371.

3)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 1371.

4) 金完熙. 韓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90. p. 261.

	目花,心悸,神思恍惚,少食,便溏,脈虛弱 등	
裏實	腹滿脹痛拒按,便秘,譫狂,脈沈實,胎黃厚膩 등	攻法

3) 表裏異治의 理法이 後代 醫家에 미친 영향
이러한 『內經』의 表裏異治의 理法은 後世醫家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張仲景은 『內經』의 理論을 全面的으로 계승하였는데 『金匱要略·臟腑經絡先後病脈證第一』에서 說하기를 “問曰, 病有急當救裏救表者는 何謂也오 師曰 病者를 醫下之하야 續得下利清穀不止하고 身體疼痛者는 急當救裏오 後身疼痛하고 清便自調者는 急當救表也오”⁶⁾라 治病에 있어 表裏의 개념을 구체적 적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李中梓는 『醫宗必讀·辨治大法論』에서 “因氣病而及血者는 先治其氣하고 因血病而及氣者는 先治其血이오 表裏者는 病在於表컨대 毋攻於裏니 恐表邪乘虛陷入於裏也오 病在於裏컨대 毋虛其表니 恐汗多亡陽也라”⁷⁾하여 氣病과 血病에 따른 治療 先後의 차이와 질병 부위에 따른 치료의 주의점을 말하고 있다.

清代의 周學海는 『讀醫隨筆·表裏俱病治各不同』에서 “表裏俱病者는 俱傷於邪也오 非表邪實裏正虛之謂也라 邪氣者는 六淫이 是也라 試以寒熱明其例컨대 表裏俱寒者는 治宜溫中散寒이니 裏氣壯而外邪可退矣라 仲景이 於身體疼痛과 下利清穀에 先溫其裏하고 後攻其表者는 是指示大法如此라 其實表裏兩感於寒하면 溫裏發表하야 一時并用이니 正不必分先後也라 表裏俱熱者는 治宜甘寒하고 佐以辛涼散이니 如藜香岩溫熱治法이라 若陽明腑實者는 更先以苦寒鹹寒攻下之니 如服承氣이면 大便得通하고 而汗自出이 是也라 二者表裏同氣 故로 重在裏면 治其裏而表亦即應手而愈矣오……大抵病이 由外陷內者는 須開其表而撐其裏하야 使邪仍從原路出也라 昔人이 嘗謂少陰之邪는 仍以太陽爲出路하고 太陰之邪는 仍以陽明爲出路라하니라 故로 凡外邪內

陷日久者는 服藥後能轉見表症하니 卽是邪氣退出也오 又如內傷飲食하야 以致惡寒이면 則攻滯之中에 必兼理氣라 內傷精血하야 以致發熱이면 則養陰之中에 必寓潛陽이라 此又表裏互虛互實之治法也라”⁸⁾하여 表裏同病의 複雜한 病證인 경우에도 『內經』의 뜻에 따라 施治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寒熱溫涼의 調和를 도모

人體는 疾病 과정 중에서 寒熱溫涼의 不均衡의 狀態를 發顯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하기를 “陽勝則熱하고 陰勝則寒이라”고 하였고, 또한 『素問·調經論』에는 “陽虛則外寒하고 陰虛則內熱하며 陽盛則外熱하고 陰盛則內寒이라”고 하였다. 즉 寒熱은 모두 陰陽에 配伍되며, 寒熱의 多少는 항상 陰陽의 盛衰를 表現한다.⁹⁾ 『內經』에서는 人體의 寒熱溫涼의 不均衡의 狀態를 다시 均衡과 調和의 狀態를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理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아래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原文】

『素問·陰陽應象大論』

○ 陽勝則熱하고 陰勝則寒하며 重寒則熱하고 重熱則寒하니 寒傷形하고 熱傷氣라 (陽이 勝하면 熱하고 陰이 勝하면 寒하다. 寒이 重하면 熱이 되고 熱이 重하면 寒이 된다. 寒은 形을 상하게 하고 熱을 氣를 상하게 한다.)

『素問·鍼解』

○ 刺虛則實之者는 鍼下熱也니 氣實乃熱也라 滿而泄之者는 鍼下寒也니 氣虛乃寒也라 (虛한 것을 刺鍼하여 實하게 하는 것은 鍼下를 熱하게 하는 것이니 氣가 實한 즉 熱한다. 滿한 것을 泄하게 하는 것은 鍼下를 寒하게 하는 것이니 氣가 虛한 즉 寒하다.)

『素問·調經論』

○ 陽虛則外寒하고 陰虛則內熱하며 陽盛則外

5) 金完熙. 韓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90. p. 263.

6) 張仲景. 金匱要略. 北京, 中國醫葯科技出版社. 1996. p.6.

7)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21.

8) 周學海. 讀醫隨筆. 서울, 木杓土. 2000. pp. 239~242.

9)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 1369.

熱하고 陰盛則內寒이라 (陽虛하면 外寒하고 陰虛하면 內熱한다. 陽盛하면 外熱하고 陰盛하면 內寒한다.)

『素問·至真要大論』

○ 寒者熱之하고 熱者寒之하며 溫者清之하고 清者溫之라 (寒은 뜨겁게 하고 熱은 차갑게 한다. 溫은 서늘하게 하고 清은 따뜻하게 한다.)

○ 帝曰 論言治寒以熱하고 治熱以寒이라 하니 而 方士不能廢繩墨而更其道也니이다 有病熱者是 寒之而熱하고 有病寒者是 熱之而寒하며 二者皆在한데 新病復起하면 奈何治니잇가

岐伯曰 諸寒之而熱者는 取之陰하고 熱之而寒者는 取之陽하면 所謂求其屬也니이다 (黃帝가 말하기를 論에서 寒은 熱로 다스리고 熱은 寒으로 다스립니다. 方士가 繩墨을廢하고 그 道를 고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熱病을 앓는 자를 寒藥을 썼으나 熱나는 경우가 있고 寒病을 앓고 있는 자를 熱藥을 썼으나 寒한 경우가 있습니다. 寒熱의 두 증상이 모두 존재하는 가운데 新病이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다스리는지요? 岐伯이 말하기를 모든 寒하게 하나 熱나는 경우는 陰에서 그것을 취하고 熱나게 하나 寒한 것은 陽에서 그것을 취한다. 이른바 그 屬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勞者溫之하고 結者散之하며 …… 損者溫之하라 (勞者는 따뜻하게 하고 結者는 흩어지게 한다. …… 損者는 따뜻하게 한다.)

○ 寒熱溫涼에 衰之以屬하고 隨其攸利이니이다 謹道如法하면 萬舉萬全하여 氣血正平하면 長有天命하리라 (寒熱溫涼은 屬한 바로 그것을 衰하게 한다. 그 利하는 바를 따라 삼가 道를 행하는 것이 法則과 같다면 만 가지 일을 들어도 모두 완전히 해낼 수 있다. 이에 氣血이 正平하니 天命을 누릴 수 있다.)

『靈樞·刺節眞邪』

○ 刺熱者는 用鑱鍼하고 刺寒者는 用毫鍼也하라 (熱病을 刺針할 때는 鑱鍼을 쓰고 寒病을 刺針할 때는 毫鍼을 쓴다.)

【考察】

寒熱은 주로 病狀에 나타나는 自覺的, 또는 他覺的인 體溫上의 變化 징후를 辨別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寒證과 熱證의 辨別은 쉬우나, 病象의 反映은 항상 複雜하며, 全身性의 寒證 또는 熱證 外에 上에 기울거나 또는 下에 기울거나 또한 寒熱錯雜의 證후 등이 있다. 가장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寒熱의 眞假이다. 만약 裏가 眞寒이고 外가 假熱 혹은 裏가 眞熱이고 外가 假寒이라면, 이 病狀은 매우 복잡한 것인데, 더욱 이러한 증상은 疾病이 重大한 때에 나타난다.

그리고 寒證과 熱證이 있어 寒이 가벼운 것을 涼證이라 하고 熱이 가벼운 것을 溫證이라 한다. 이러한 寒熱溫涼의 서로 같지 않은 證候에 대해 각각에 적합한 溫涼寒熱한 藥性을 選用하게 된다. 즉 “寒證宜熱하고 涼證宜溫하며 涼證宜溫하고 熱證宜寒이라” 그리고 이러한 寒熱의 症候는 각각 虛實에 따라 구분된다.

1) 實證의 寒證과 熱證에 관하여

먼저 단순히 實證만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보면 “陽勝則熱하고 陰勝則寒하며 重寒則熱하고 重熱則寒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素問·調經論』에서도 “陽虛則外寒하고 陰虛則內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素問 至真要大論』의 “寒者熱之하고 熱者寒之하며 溫者清之하고 清者溫之라”의 治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病이 實證의 寒證인 경우에는 마땅히 熱藥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病이 實證의 熱證에 속한 경우에는 寒藥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그리고 病이 溫證에 속한 경우에는 涼한 藥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病이 清證에 속한 경우에는 마땅히 溫藥을 사용하여 치료한다.¹⁰⁾ 이는 治法에 있어 常法이다. 즉 가장 常用되며 가장 實用적인 방법으로 證을 診斷하여 藥物을 사용할 시에 證候의 寒熱의 性質과 相反되는 藥物을 사용하는 것으로 後代의 八法 중 溫法과 清法으로 발전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藥物療法 이외에 鍼灸法에 있어

10) 程士德. 內經理論體系綱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370.

서도 이러한 寒熱溫涼의 調和는 중요하다. 熱하게 하는 鍼灸法으로는 『素問·鍼解』에 “刺虛則實之者是 鍼下熱也니 氣實乃熱也라”의 手法과 燔針, 灸熯의 熱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九鍼 중의 毫鍼(『靈樞·刺節眞邪』 “刺寒者用毫鍼”)을 사용하는 것이다. 寒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素問·鍼解』中 “滿而泄之者是 鍼下寒也니 氣虛乃寒也라”의 手法과 素問·水熱穴論의 “治熱病五十九俞”의 取穴과 九鍼 중 鑱鍼(『靈樞·刺節眞邪』 “刺熱者用鑱鍼”)을 사용하는 등은 모두 後世에서 本받아 活用되고 있다.

2) 虛寒, 虛熱에 關하여

그리고 단순한 寒熱의 實證 이외에 또한 虛寒, 虛熱의 경우도 많다. 『素問·調經論』에서는 “陽虛則外寒하고 陰虛則內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素問·至眞要大論』의 “有病熱者是 寒之而熱하고 有病寒者是 熱之而寒하며 二者皆在한데 新病復起하면 奈何治니잇가”의 구절은 證에 臨하였을 때 복잡한 情況이 있는데 이에 의사가 虛實에 대해 살피지 않고 모두 實證으로 치료한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治法으로 “이를 寒性藥으로 治療해도 여전히 熱이 나는 것은 眞陰이 부족한 것이니 이를 陰에서 取하고(陰을 길러 주고), 이를 熱性藥으로 治療해도 여전히 寒하는 것은 眞陽이 부족한 것이니 이를 陽에서 取하라.(陽을 보해준다.)”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 말한 實證의 경우와 달리 人體의 眞陰, 眞陽의 不足으로 인해 발생하는 寒熱의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治法은 虛勞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勞者溫之”, “損者溫之”라 하였다. 虛勞, 氣血兩虛로 인해 발생하는 熱證의 경우에 治療法으로 寒涼한 藥을 過用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甘溫한 藥제를 사용하여 그 虛한 것을 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人體의 生氣, 眞陽을 회복하여 寒熱溫涼의 調和를 도모하는 것이다.¹¹⁾

그리고 歷代 醫家들은 『素問·至眞要大論』 내

용 중 “諸寒之而熱者是 取之陰하며 熱之而寒者是 取之陽이라”의 이론을 중시하여 확대, 발전시켰다. 그 중 王冰의 뜻이 經典의 뜻에 가장 적합하여 자못 후인들이 미루어 숭상하였다. 王冰은 “夫如大寒而甚에 熱之不熱은 是無火也오 熱來復去커나 晝見夜伏커나 夜發晝止커나 時節而動은 是無火也니 當助其心하라 又如大熱而甚에 寒之不寒은 是無水也라 …… 夫寒之不寒은 責其無水오 熱之不熱은 責其無火니 熱之不久면 責心之虛하고 寒之不久면 責腎之少하라 …… 紀於水火하니 餘氣可知라”¹²⁾하여 寒熱症狀중에 無火症, 無水症을 心腎의 虛로 보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張介賓은 『類經·論治類』에서 ‘取之陰’, ‘取之陽’의 理論을 進一步해서 풀이하여 말하기를 “諸寒之而熱者是 謂以若寒治熱而熱反增이니 非火之有餘오 乃眞陰之不足也라 陰不足則陽有餘而爲熱하니 故當取之於陰니 謂不宜治火也오 只補陰以配其陽이면 則陰氣復而熱自退矣라 熱之而寒者是 謂以辛熱治寒而寒反甚이니 非寒之有餘오 內眞陽之不足也라 陽不足則陰有餘而爲寒하니 故當取之於陽이니 謂不宜攻寒也라 但補水中之火면 則陽氣復而寒自消也라”¹³⁾하여 眞陰不足과 眞陽不足으로 寒熱의 虛證을 설명하고 있으며, 具體的 治療에 있어서 『類經·疾病類』에서 “凡陰虛多熱者是 最嫌辛燥니 恐助陽邪也오 尤忌苦寒이니 恐伐生陽也라 惟宜純甘壯水之劑로 補陰以配陽하면 則剛爲柔制되니 虛火自降하여 而陽歸乎陰矣라 …… 陽虛多寒者是 最嫌涼潤하니 恐助陰邪也오 尤忌辛散하니 恐傷陰氣也라 只宜甘溫益火之品로 補陽以配陰이라”¹⁴⁾하여 陰陽補瀉 중 ‘陰陽相濟’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善補陽者是 必於陰中求陽이니 則陽得陰助而生化無窮이오 善補陰者是 必於陽中求陰이니 則陰得陽升而泉源不竭이라”¹⁴⁾하여 陰虛多熱, 陽虛多寒의 治法과 治療原理를 설명하고 있다.

12) 王冰. 黃帝內經素問. 大星出版社. 影印本. pp. 722-728.

13)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 335.

14)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 450.

11) 程士德. 內經理論體系綱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370.

3) 寒熱溫涼의 調和를 도모한 治療 理法이 後代 醫家에 미친 영향

明代 李仲梓는 『醫宗必讀·辨治大法論』에서 陰陽寒熱의 治療에 대해 結論式으로 말하고 있다. “陰陽者는 病在於陰이면 毋犯其陽하고 病在於陽이면 無犯其陰이니 謂陰血爲病이면 不犯陽氣之藥이니 陽旺則陰轉虧也 陽氣爲病은 不犯陰血之藥이니 陰盛則陽轉敗也라 寒熱者는 熱病에 當察其源하야 實則瀉以苦寒鹹寒하고 虛則治以甘寒酸寒하며 大虛則用甘溫하니 蓋甘溫能除大熱也라 寒病에 當察其源하야 外寒則辛熱辛溫以散之하고 中寒則甘溫以益之하고 大寒則辛熱以佐之也라”¹⁵⁾하여 陰陽을 잘 가려 治療하는 법을 중요시 했으며, 각각의 경우에 實證, 虛證, 大虛證으로 治法을 세분화하였다. 李仲梓는 『內經』의 깊은 뜻을 얻었으며 내용이 繁雜하지 않고 要諦를 말하고 있다.

清代 程國彭은 『醫學心悟·醫中百誤歌』에서 “醫家誤는 昧寒熱이라 顯然寒熱易分別이나 寒中有熱하고 熱中寒은 須得長沙真秘訣이라 (長沙用藥에 寒因熱用하고 熱因寒用하며 或先寒後熱하고 或先熱後寒하며 或寒熱并用하니 精妙入神하여 良法具在라 熟讀精思하면 自然會通이라 然時移世易하니 讀仲景書하고 按仲景法하되 不必拘泥仲景方하야 而通變用藥하면 尤爲得當이라)”¹⁶⁾라 하여, 張仲景의 寒熱에 대한 辨證과 治法을 중시하면서 醫師는 반드시 寒熱에 대해 밝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에서 寒熱溫涼의 治療理法을 運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病情을 상세히 살펴야하며, 病情의 具體的인 情狀에 근거하여 寒熱溫涼의 調和를 도모하는 治法 下에 具體的인 藥物療法, 鍼灸療法들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素問·至眞要大論』에서 “寒熱溫涼에 衰之以屬하고 隨其攸利라 謹道如法하면 萬舉萬全하야 氣血正平하고 長有天命니

이다”고 한 것이다.

3. 虛實에 따른 補瀉

虛實補瀉는 扶正祛邪의 治療 原則 下에 있는 구체적 治療 理法에 속한다. 疾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患者의 體力인 正氣와 發病原因인 邪氣를 重要視한다. 疾病이란 邪正이 서로 抵抗하는 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正氣가 이기면 病이 나을 것이요 邪氣가 이기면 病이 重하게 되거나 死亡할 것이다. 여기서는 『內經』에서 이러한 正氣와 邪氣의 盛衰에 따른 補瀉法을 具體的으로 어떻게 論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原文】

『素問·陰陽應象大論』

○ 病之始起也에 可刺而已오 其盛하면 可待衰而已라 故로 因其輕而揚之오 因其重而減之오 因其衰而彰之니 形不足者는 溫之以氣하고 精不足者는 補之以味라 其高者는 因而越之오 其下者 引而竭之오 中滿者 瀉之於內오 其有邪者 瀆形以爲汗이오 其在皮者 汗而發之오 其慄悍者 按而收之오 其實者 散而瀉之니 審其陰陽하야 以別柔剛하야 陽病治陰하고 陰病治陽호대 定其血氣하야 各守其鄉이니 血實하면 宜決之오 氣虛하면 宜掣引之니이다 (病이 처음 일어날 때 刺針하여 治療할 수 있다. 그 병이 盛하면 衰함을 기다려 낮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병이 輕한 것은 因하여 揚하고 그 重한 것은 因하여 病을 減하며 그 衰한 것은 病을 彰한다. 形이 부족한 자는 氣로써 溫한다. 精이 부족한 자는 味로써 補한다. 그 병이 높이 있는 자는 그것을 말미암아 越하고 그 병이 아래에 있는 자는 引하여 竭한다. 中滿은 內에서 瀉하고 그 병에 邪氣가 있으면 形을 瀆하여 땀이 되게 한다. 그 병이 皮에 있으면 땀을 내어 發하고 그 병이 慄悍한 자는 按하고 收한다. 그 병이 實한 자는 散하고 瀉한다. 그 陰陽을 살펴 剛柔를 구별하여 陽病은 陰을 다스리고 陰病은 陽을 다스린다. 血氣를 定하여 근원을 지킨다. 血實은 마땅히 소통시키고 氣虛은 마땅히 끌어당긴다.)

15) 李仲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21.

16) 程國彭. 吳批醫學心悟. 中國. 旋風出版社. 中華民國59年. p. 3.

『素問·三部九候論』

○ 必先度其形之肥瘦하여 以調其氣之虛實이니 實則寫之하고 虛則補之호대 必先去其血脈而後調之며 無問其病하고 以平爲期니이다 (반드시 먼저 그 形의 肥瘦를 헤아려 그 氣의 虛實을 조절한다. 實한 즉 寫하고 虛한 즉 補한다. 반드시 먼저 瘀血이 있는 脈을 제거한 이후 虛實을 조절한다. 이에 그 병을 묻지 말고 平함을 기약으로 삼는다.)

『素問·經脈別論』

○ 太陽藏獨至하여 厥喘虛氣逆하면 是 陰不足 陽有餘也니 表裏當俱瀉하여 取之下俞오 陽明藏獨至하면 是 陽氣重并也니 當瀉陽補陰하여 取之下俞오 少陽藏獨至하면 是 厥氣也니 驕前卒大하여 取之下俞오 少陽獨至者는 一陽之過也니이다 太陰藏搏者는 用心省眞하며 五脈氣少하고 胃氣不平이면 三陰也니 宜治其下俞하여 補陽瀉陰이니이다 一陽獨嘯는 少陽厥也니 陽并於上하여 四脈爭張하고 氣歸於腎이니 宜治其經絡하여 瀉陽補陰이오 一陰至는 厥陰之治也니 眞虛病心하고 厥氣留薄하여 發爲白汗이니 調食和藥하고 治在下俞니이다 (太陽臟만이 홀로 왕성하게 다다른 厥逆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虛氣가 逆하는데 이는 陰이 모자라고 陽이 남아돌기 때문인데 表와 裏를 마땅히 모두 瀉해주되 下俞를 取해야 한다. 陽明臟만이 홀로 왕성하게 다다른 陽氣가 거둬 并함이니 마땅히 陽을 瀉해주고 陰을 補해주되 下俞를 取해야 한다. 少陽臟만이 홀로 왕성하게 나타나면 이는 厥氣했기 때문이며 陽驕脈 앞이 갑자기 부어오르니 下俞를 취하여야 한다. 足少陽膽脈이 홀로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一陽(少陽)의 氣가 過하기 때문이다. 太陰臟이 힘 있게 搏擊하면 마음을 써서 眞藏脈인지를 살펴야 하며 五臟의 脈氣가 少하고 胃氣가 평화롭지 못함은 三陰이니 의당 그 下俞를 치료하되 陽을 補해주고 陰을 瀉해주어야 한다. (一陽을 二陰으로 교정하여 해석) 二陰이 홀로 盛한 것은 少陰이 厥逆하기 때문이며 陽氣도 위로 兼并하여 올라가서 四臟脈이 다투어 확장하여 그 氣가 腎으로 돌아가니 의당 그 經絡을 치료하되 陽을

瀉해주고 陰을 補해주어야 한다. 一陰이 다다른 足厥陰肝經脈을 치료해야 하는데 眞氣가 虛하여 心을 疇하게하고 厥逆하는 氣가 머물러 搏함에 發하여 白汗이 되니, 食을 조절하고 藥을 조화되게 쓰며 치료함이 下俞에 있다.)

『素問·通評虛實論』

○ 黃帝 問曰何謂虛實이니잇고 岐伯이 對曰邪氣盛則實이오 精氣奪則虛니이다.

(黃帝가 물어 말하길 虛實이란 무엇인가? 岐伯이 대답하여 말하길 邪氣가 盛한 것이 實이요 精氣가 奪한 것이 虛입니다.)

『素問·至眞要大論』

○ 寒者熱之하고 熱者寒之하며 溫者清之하고 清者溫之하며 散者收之하고 抑者散之하며 燥者潤之하고 急者緩之하며 堅者熨之하고 脆者堅之하며 衰者補之하고 強者寫之하니 各安其氣하여 必清必靜하면 則病氣衰去하여 歸其所宗하니 此治之大體也라 (寒者는 熱나게 하고 熱者는 寒하게 하며 溫者는 清하고 清者는 溫한다. 散者는 收하고 抑者는 散하며 燥者는 潤하고 急者는 緩한다. 堅者는 熨하고 脆者는 堅하며 衰者는 補하고 強者는 寫한다. 각각 그 氣를 편안하게 하여 반드시 淸淨하게 하면 病氣가 衰하여 제거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治法의 大體이다.)

○ 寒者熱之하고 熱者寒之하며 微者逆之하고 甚者從之하며 堅者削之하고 客者除之하며 勞者溫之하고 結者散之하며 留者攻之하고 燥者濡之하며 急者緩之하고 散者收之하며 損者溫之하고 逸者行之하며 驚者平之하고 上之下之하며 摩之浴之하고 薄之劫之하며 開之發之하고 適事爲故라 (寒者는 熱나게 하고 熱者는 寒하게하며 微者는 逆하고 甚者는 從하며 堅者는 削하고 客者는 除한다. 勞者는 溫하고 結者는 散하며 留者는 攻하고 燥者는 濡한다. 急者는 緩하고 散者는 收하며 損者는 溫하고 逸者는 行하며 驚者는 平한다. 上하고 下하고 摩하고 浴하며 薄하고 劫하고 開하고 發하는 것은 그 事에 딱 맞게 하는 것을 법으로 삼는다.)

『靈樞·經脈』

○ 爲此諸病하여 盛則寫之하고 虛則補之오 熱

則疾之하고 寒則留之오 陷下則灸之하고 不盛不虛하면 以經取之니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병이 되면 盛한 즉 寫하고 虛한 즉 補한다. 熱한 즉 刺針을 빠르게 하고 寒한 즉 留針한다. 陷下한 즉 灸하고 不盛不虛하면 經으로 취한다.)

『靈樞·刺節眞邪』

○ 解惑者는 盡知調陰陽하고 補寫有餘不足하여 相傾移也라 …… 岐伯曰 瀉其有餘하고 補其不足하여 陰陽平復하니 用鍼若此면 疾於解惑이라 (의문을 해소한다는 것은 陰陽을 조절하고 有餘不足을 補瀉하여 서로 傾移하는 法을 자세하게 아는 것이다. …… 岐伯이 말하기를 그 有餘함을 寫하고 그 不足함을 補하여 陰陽이 平을 회복하니, 鍼 쓰는 바가 이와 같다면 의문이 해소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考察】

『素問·通評虛實論』에서 말한 “邪氣盛則實이오 精氣奪則虛니이다”라는 이 句節은 虛實에 대한 經典定義이다. 이때 ‘實’이라는 것은 邪氣를 말하는 것으로 外感六淫, 痰飲, 瘀血 등이 체내에 머물러 나타나는 症候를 말하고 모두 實證에 속한다. 그리고 ‘虛’라는 것은 正氣를 말하는 것으로 精, 氣, 血, 津液 등을 포괄하며, 이러한 요소들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후를 虛證이라 한다.

邪氣의 盛함과 精氣의 虛에 따른 治療로서 『內經』의 여러 篇 (『素問·三部九候論』, 『靈樞·經脈』, 『靈樞·刺節眞邪』)에서 공통적으로 “盛則瀉之하고 虛則補之하라”고 하고 있다. 補虛瀉實은 千古에 변하지 않는 법이다.

1) 補法

補法이란 人體의 陰, 陽, 氣, 血 또는 어떤 臟器와 榮衛의 虛損에 대처하기 위한 治法을 말한다.

이는 여러 종류의 補益劑를 배합하여 氣血의 不足을 補助하고, 陰陽의 偏重을 調和시켜 平靜과 平衡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正氣가 허약하여 餘邪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상황 하에 있을 때 補法을 쓰면 正氣가 回復될 뿐만 아니라 餘邪를 제거하는 데도 유리하다.

따라서 補法은 虛를 補하며 弱을 補強하는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간접적으로 祛邪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임상응용에 있어서는 크게 補氣, 補血, 補陰, 補陽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補氣法

補氣法은 倦怠無力하여 말하기도 싫어하고 동작하기를 귀찮아하며, 호흡이 미약하고 虛熱自汗하며, 脈狀은 虛하고, 간혹 脫肛, 疝氣, 婦人의 脫陰 등의 證을 나타낸다. 處方으로는 四君子湯과 補中益氣湯 등이 補氣劑의 主劑이다.

② 補血법

補血은 顔色이 萎黃하고 爪甲과 口唇이 창백하며, 頭重, 眩暈, 耳鳴, 怔忡, 嘈雜, 動悸 등의 證과 女性의 月經不調와 減少, 血色淡白, 심한 경우 經閉不行하는 등의 血虛證에 응용된다. 處方으로는 四物湯과 大營煎이 主劑가 된다.

③ 補陰法

補陰法은 羸瘦衰弱, 口渴咽乾, 肌膚焦乾, 耳鳴, 目眩, 心悸亢進, 易驚, 虛煩不眠, 盜汗遺精, 咳嗽咯血, 消渴 등 陰虛證에 응용되며, 六味地黃元, 清離滋坎湯 등이 주요한 方劑가 된다.

④ 補陽法

補陽法은 허리 아래가 寒冷하고 허리와 무릎이 酸軟하고 혹은 疼痛하며, 下肢의 軟弱으로 步行이 곤란하고, 배꼽 아래가 마비 또는 하복부가 때때로 동통하며, 대변은 泄瀉, 소변은 頻數 또는 澀少, 陽痿早漏, 虛喘 등 陽虛證에 응용되며, 八味元, 右歸飲 등이 主劑가 된다.

補法에 대한 『內經』의 내용을 살펴보면,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因其衰而彰之’와 ‘虛則補之’, 『素問·至眞要大論』의 ‘衰者補之’는 補法의 總要이다. 그리고 補를 행함에 있어 氣血陰陽의 차이와 藥用의 차이가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形不足者는 溫之以氣하고 精不足者는 補之以味”는 補陽과 補陰의 說이다. 『素問·至眞要大論』의 ‘勞者溫之’와 ‘損者溫之’는 溫補法을 가리키며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虛宜掣引之’와 『素問·氣交變大論』의 ‘下者舉之’는 補中과 升舉을 兼한 것이다. 『素問·至眞要大論』의 ‘散者收之’는

補中과 收斂을 겸한 것이며 『素問·至眞要大論』의 ‘脆者堅之’는 補法으로 臟氣를 强盛하게 하는 것이다. 『素問·五常政大論』의 “穀肉果菜를 食養盡之라”는 곧 病後에 健康을 回復하는 것으로 所謂 “藥補不如食補”를 말하는 것이다.¹⁷⁾ 汗吐下和溫清消補의 八法 中에서는 주로 溫法과 補法이 여기에 속한다.

2) 瀉法

瀉法이란 韓醫學 이론에서의 특유한 용어인 補瀉法 中 細胞組織의 生命力이 스스로 그 기능을 發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瀉法은 補法에 對應하는 말이다. 瀉에 쓰이는 藥物은 實證에 대한 破, 散, 消, 下 등에 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로서, 氣가 有餘한 상태에서 有餘를 削奪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病을 攻하는 데에 쓰이는 약제를 瀉劑라 하고, 發汗, 催吐, 瀉下는 이에 속하는 사법이다. 그리고 鍼灸學상으로도 다양한 手技의 瀉法이 있다.

瀉法에 대한 『內經』의 내용을 살펴보면,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其實者 散而瀉之”는 곧 ‘實則瀉之’, ‘强者瀉之’와 모두 같은 의미로 瀉法의 總要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因其輕而揚之’, 『素問·至眞要大論』의 ‘客者除之’,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其在皮者是 汗而發之라”, “其有邪者是 漬形以爲汗이라” 등은 實邪가 表에 있어 表部를 따라서 瀉하는 것, 즉 汗法이 된다. 그리고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其高者是 因而越之라”는 邪氣가 上部에 있어 위를 따라서 出하도록 하는 것, 즉 吐法이 된다. 또한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因其重而減之’와 “其下者是 引而竭之라”와 『素問·至眞要大論』의 ‘留者攻之’, ‘堅者削之’, ‘堅者栗之’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中滿者是 瀉之於內라”와 『素問·氣交變大論』의 ‘高者抑之’ 등은 實邪를 瀉下시키고 水飮을 攻逐하고 消食化積, 導氣於下시키는 法으로 모두 下法과 消導法에 屬한다. 『素問·至眞要大論』의 ‘結者

散之’, ‘逸者行之’, ‘抑者散之’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血實宜決之’와 『素問·鍼解』의 “菀陳則除之者是 出惡血也라”와 五鬱의 治法(木鬱達之, 火鬱發之, 土鬱奪之, 金鬱泄之, 水鬱折之)은 모두 氣實, 血實의 有餘에 대한 것으로 모두 瀉法에 속하는 것으로 후세에 和解法과 行氣活血法으로 演變되었다. 『素問·至眞要大論』의 ‘薄之劫之’는 用藥에 있어 和緩과 峻猛의 區別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素問·至眞要大論』의 ‘適事爲故’는 “各安其氣하여 必清必靜한 則病氣衰去하며 歸其所宗이라”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다.¹⁸⁾ 汗吐下和溫清消補의 八法 中에서는 주로 溫法과 補法이 여기에 속한다.

3) 虛實補瀉의 治療理法이 後代 醫家에 미친 영향

이러한 『內經』의 虛實에 따른 補瀉의 治療理法은 후세 醫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序例·服餌第八』에서 “素問曰 實則瀉之하고 虛則補之하고 不虛不實하면 以經取之는 此其大略也오 凡有臟腑積聚에 無問少長하고 須瀉則瀉하고 凡有虛損에 無問少長하고 須補即補니 以意量度而用之라”¹⁹⁾하여 ‘實則瀉之’와 ‘虛則補之’를 治法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張介賓은 『類經·疾病類』에서 “愚按病有 虛實者하니 虛因正氣不足이요 實因邪氣有餘也라 凡外人之病多有餘하니 如六氣所感과 飮食所傷之類也오 內出之病多不足하니 如七情傷氣와 勞慾傷精之類也라 凡實者宜瀉는 如經曰寒者熱之하고 熱者寒之하고 堅者削之하고 客者除之하고 結者散之하고 留者攻之하고 溢者行之하고 强者瀉之之屬이니 皆用瀉之法也오 凡虛者宜補는 如云散者收之하고 燥者潤之하고 急者緩之하고 脆者堅之하고 衰者補之하고 勞者溫之하고 損者益之하고 驚者平之之屬이니 皆用補之法也라 虛實之治는 大槩如此하니 第當今之人은 實者無幾

17)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 1370.

18)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 1370.

1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 13.

하고 而虛者七八이오 病實者는 其來速하고 其去亦速하니 故其治易하나 病虛者는 損傷有漸하야 不易復元하니 故其治難이라 治實者는 但知爲少壯新邪면 則可攻可拔하야 猶無足慮오 治虛者는 但察其根本有虧면 則條忽變幻하야 可無慮乎아 凡治實之法에 外有餘면 可散其表요 內有餘면 可攻其裏요 氣有餘면 可行其滯요 血有餘면 可逐其瘀니 方治星羅하야 可無噎이라 惟虛損之治가 在法有未盡者는 不得不詳其要焉이라”²⁰⁾하였다. 이는 內傷을 虛證으로, 外感을 實證으로 구분했을 때 『內經』의 治法 중에 補法이 많음을 들어 實證보다 虛證인 사람이 많음을 주장하고 있다.

清代 程國彭은 『醫學心悟·醫中百誤歌』에서 “醫家誤은 味虛實이라 顯然虛實은 何難治이나 虛中有實하고 實中虛하니 用藥東垣으로 有次第라 (『脾胃論』『內外傷辨』에 補中 枳朮等方은 開萬世無窮之利라)”²¹⁾하여, 李東垣의 學說 사상을 빌어 虛實에 대한 分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周學海는 『讀醫隨筆·虛實補瀉論』에서 “虛實者는 病之體類也오 補瀉者는 病之律令也오 …… 有虛實相兼者焉이라 病本邪實에 當汗吐下而醫失其法하야 或用藥過劑하니 以傷眞氣하야 病實未除라 又見虛候者는 此實中兼虛也니 治之之法은 宜瀉中兼補이니라 倘虛甚者는 或不得已하야 姑從於補하니 虛復而後宜議瀉矣라 其人素虛하고 陰衰陽盛하야 一旦感邪하야 兩陽相搏하야 遂變爲實者는 此虛中兼實也니 治之之法은 不清涼이면 無由解熱하고 不轉刷면 無由逐結이라 然從前之虛 不得不顧 故로 或從緩下커나 或一下止服하라 前哲이 於此證에 以爲須先治其虛하고 後治其實하니 此殆未是也라 大抵邪不解 則不受補니 有邪而補하면 徒增壅住하고 且積日之虛니 豈暫補所能挽回乎오 考之經文컨대 如附子瀉心과 調胃承氣는 卽瀉中兼補之治也오 陽明病至循衣摸床하고 微喘直視하면 則既屬虛憊이나 而猶用承氣者는 以實去陰可回이라 縱下後頓見虛候라도 其實既去하야 則調養易施也라 擴術

觸長은 無適而不可矣라 此虛實相兼이니 大效如此라”²²⁾ 하였다. 周學海는 補瀉法 중 虛實相兼할 경우를 實中兼虛와 虛中兼實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實中兼虛와 虛中兼實의 治法 중 조심해야 할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正治와 反治

일반적으로 疾病을 治療함에 있어 症候(疾病이 表現되는 現狀)을 分析하여 疾病本質의 寒熱虛實을 分別한 후 ‘寒者熱之’, ‘熱者寒之’, ‘虛則補之’, ‘實則瀉之’의 각 方法을 採用하는 것이 있으며, 이와 반대의 경우로 症候와 동일한 조건의 상황을 치료에 이용하는 법, 예를 들어 ‘寒因寒用’, ‘熱因寒用’, ‘通因通用’, ‘塞因塞用’ 등의 方法을 採用하는 것이 있다. 前者를 正治라 하고, 後者를 反治라 한다. 아래에서는 『內經』에서 內容 中の 正治와 反治의 治療 理法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原文】

『素問·陰陽應象大論』

○ 因其重而減之오 因其衰而彰之라 形不足者는 溫之以氣하고 精不足者는 補之以味라 其高者는 因而越之오 其下者는 引而竭之오 中滿者는 瀉之於內오 其有邪者는 瀉形以爲汗이오 其在皮者는 汗而發之오 其標悍者는 按而收之오 其實者 散而瀉之라 (그 病이 重한 것은 因하여 病을 減하며 그 衰한 것은 病을 彰한다. 形이 부족한 자는 氣로써 溫하고 精이 不足한 자는 味로써 補한다. 그 病이 높이 있는 자는 그것을 말미암아 越하고 그 病이 아래에 있는 자는 引하여 竭한다. 中滿은 內에서 瀉하고 그 곳에 邪氣가 있으면 形을 瀉하여 汗을 나게 한다. 그 病이 皮에 있으면 汗을 내어 發하고 그 病이 標悍한 자는 按하고 收하고 그 病이 實한 자는 散하고 瀉한다.)

『素問·五常政大論』

○ 治熱以寒에 溫而行之하고 治寒以熱에 涼而行之하고 治溫以清에 冷而行之하고 治清以溫하

20)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 449.

21) 程國彭. 吳批醫學心悟. 중국. 旋風出版社. 中華民國59年. p. 3.

22) 周學海. 讀醫隨筆. 서울. 木과土. 2000. pp. 83~84.

야 熱而行之하니라 (熱病을 寒法으로 다스릴 때 溫한 기운으로 行한다. 寒病을 熱法으로 다스릴 때 涼한 기운으로 行한다. 溫病을 淸法으로 다스릴 때 冷한 기운으로 行한다. 淸病을 溫法으로 다스릴 때 熱한 기운으로 行한다.)

『素問·至眞要大論』

○ 寒者熱之하고 熱者寒之하며 溫者淸之하고 淸者溫之하며 散者收之하고 抑者散之하며 燥者潤之하고 急者緩之하며 堅者熨之하고 脆者堅之하며 衰者補之하고 强者寫之하여 各安其氣하여 必淸必靜하면 則病氣衰去하여 歸其所宗하니 此治之大體也라 (寒者是 熱나게 하고 熱者は 寒하게 하며 溫者は 淸하고 淸者は 溫한다. 散者は 收하고 抑者は 散하며 燥者は 潤하고 急者は 緩한다. 堅者は 熨하고 脆者は 堅하며 衰者は 補하고 強者は 寫한다. 각각 그 氣를 편안하게 하여 반드시 淸淨하게 하면 病氣가 衰하여 제거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治法의 大體이다.)

○ 高者抑之하고 下者舉之하며 有餘折之하고 不足補之하며 佐以所利하고 和以所宜하며 必安其主客하고 適其寒溫하여 同者逆之하고 異者從之하라 (病이 높고 있으면 抑하고 아래에 있으면 舉한다. 有餘하면 折하고 不足하면 補한다. 그 利하는 바로 돕고 마땅한 바로 和한다. 반드시 그 主客을 편안히 하여 寒溫을 적당히 한다. 같은 자는 逆法을 쓰고 다른 자는 從法을 쓴다.)

○ 寒者熱之하고 熱者寒之하며 微者逆之하고 甚者從之하며 堅者削之하고 客者除之하며 勞者溫之하고 結者散之하며 留者攻之하고 燥者濡之하며 急者緩之하고 散者收之하며 損者溫之하고 逸者行之하며 驚者平之하고 上之下之하며 摩之浴之하고 薄之劫之하며 開之發之하고 適事爲故라 (寒者は 熱나게 하고 熱者は 寒하게 하며 微者は 逆하고 甚者は 從하며 堅者は 削하고 客者は 除한다. 勞者は 溫하고 結者は 散하며 留者は 攻하고 燥者は 濡한다. 急者は 緩하고 散者は 收하며 損者は 溫하고 逸者は 行하며 驚者は 平한다. 上하고 下하고 摩하고 浴하며 薄하고 劫하고 開하고 發하는 것은 그 事에 딱 맞게 하는 것을 법으로 삼는다.)

○ 帝曰 何謂逆從이니잇고 岐伯曰 逆者正治하고 從者反治하여 從少從多하면 觀其事也라

帝曰 反治何謂니잇가 岐伯曰 熱因寒用하고 寒因熱用하며 塞因塞用하고 通因通用하라 必伏其所主하되 而先其所因하고 其始則同하나 其終則異하고 可使破積하고 可使潰堅하고 可使氣和하니 可使必已라 帝曰 善이라 氣調而得者何하니 잇가 岐伯曰 逆之從之거나 逆而從之거나 從而逆之하여 疎氣令調하면 則其道也라 (黃帝가 말하기를 逆從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逆은 正治요 從은 反治를 말합니다. 從少從多하여 그 事를 관찰합니다. 黃帝가 말하기를 反治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熱로 因하나 寒法을 쓰고 寒으로 因하나 熱法을 쓰는 것과 塞으로 因할 때 塞法을 쓰고 通으로 因할 때 通法을 쓰는 것은 그 主된 바를 반드시 따른 것이니 그 원인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 시작은 같으나 그 끝은 다르니 積을 깰 수도 있고 堅한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氣를 和할 수도 있고 반드시 병을 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黃帝가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氣를 調和하여 得하는 법은 무엇인지요? 岐伯이 말하기를 逆하거나 從합니다. 逆한 후에 從하거나 從한 후에 逆하여 氣운을 소통시키고 調和롭게 하는 것이 즉 그 法度입니다.)

○ 奇之不去면 則偶之하니 是謂重方이라 偶之不去면 則反佐以取之니 所謂寒熱溫涼이 反從其病也라” (奇法으로 치료해도 病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偶法으로 한다. 이를 일러 重方이라 한다. 偶法으로 치료해도 병이 제거되지 않은 즉 反佐法으로 그것을 취한다. 寒熱溫涼의 병은 그 병을 反從한다고 일컬어진 바이다.)

【考察】

逆治와 從治의 治法은 『素問·至眞要大論』의 “逆者正治, 從者反治” (病의 症狀에 拒逆하는 것이 正治法이고 病의 症狀에 따르는 것이 反治法이다)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逆治를 正治, 從治를 反治라고 부른다.

1) 正治法

질병의 발전 과정 중에서 질병의 外的 表現인 症狀과 本質은 일반적인 疇 하에서는 일치한다. 특히 初起 증상이나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治療 用藥의 藥性은 그 表象에 逆하는 것이 可하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逆治, 正治法이다. 그 具體的인 治法에 있어서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因其重而減之오 因其衰而彰之하야 …… 其標悍者 按而收之오 其實者 散而瀉之오”라고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 “寒者熱之하고 熱者寒之하며 溫者清之하고 清者溫之하며 …… 衰者補之하고 强者寫之라”, “高者抑之하고 下者舉之하며 有餘折之하고 不足補之하라”; “堅者削之하고 客者除之하며 勞者溫之하고 結者散之하며 留者攻之하고 燥者濡之하며 急者緩之하고 散者收之하며 損者溫之라”고 하였다. 모두 病情과 治法이 서로 逆하는 正治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微者逆之’의 微는 病情이 單一하고 複雜하지 않다는 뜻이며 逆은 藥性과 病性이 서로 相反함을 말한다.

表 3. 正治法²³⁾

		如開宣肺氣	
留	指停飲, 停食, 蓄水, 經閉等病證	攻: 攻逐瀉下薄: 急下, 如峻下逐水	十棗湯, 大承氣湯, 桃核承氣湯, 抵當湯 等
燥	津液缺乏一類病證, 如口乾, 皮膚皸裂, 大便困難 等	濡: 滋潤養陰	瓊玉膏, 增液承氣湯 等
急	拘急強直一類病證, 如口噤項強, 手足拘攣 等	緩: 緩急解痙	資壽解語湯, 芍藥甘草湯, 木瓜湯 等
散	耗散, 滑脫不禁一類病證	收: 收斂固澀	牡蠣散, 金鎖固精丸 等
損	虛損一類病證, 如氣虛, 血虛, 陰虛, 陽虛 等	益: 補益	六味丸, 八味丸, 四物湯, 四君子湯 等
逸	指癱瘓, 痿痺一類不能行動的病證	行: 行氣活血, 舒筋活絡	大活絡丹, 小活絡丹 等
驚	指驚風, 抽搐等一類病證	平: 鎮靜, 止驚	抱龍丸 等
上	指病位在上部的病證, 如膈上痰涎證	上: “其高者, 因而越之”, 即涌吐法	瓜蒂散 等
下	指病位在下部的病證, 如陽陰腑實, 太陽蓄水 等	下: “其下者, 引而竭之”, 指通利二便之法	大承氣湯, 五苓散 等

病證	病例	治法	方例
堅	腹內堅硬有形的 一類病證, 如癥瘕, 瘰癧 等	削: 克伐推蕩, 活血化癥	鼈甲煎丸, 削堅丸 等
客	六淫侵襲一類病證, 如風寒, 風熱, 風濕 等	除: 祛邪法, 如發汗, 祛濕等法 劫: 劫奪, 如截癰發: 發散, 如發汗, 透疹解表	麻黃湯, 銀翹散, 九味羌活湯, 大承氣湯, 截癰七寶飲, 升麻葛根湯 等
勞	虛損類病證	溫: 溫陽強壯	八味丸, 歸脾湯, 人參養榮湯 等
結	邪氣, 痰濁結聚類病證, 如結胸, 流注 等	散: 消痰散結, 行氣開: 開泄,	陷胸湯, 指迷茯苓丸, 礪砂膏 等

2) 反治法

重病이나 久病의 경우 표출되는 病象이 本질과 일치하지 않는 假象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病情 또한 비교적 複雜하다. 이런 경우 사용되는 藥性은 表象에 順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從治, 反治法이다. 反治에 대해서는 『素問·至眞要大論』에 “熱因寒用하고 寒因熱用하며 塞因塞用하고 通因通用하라”고 하였다. 이는 질병의 假象에 順從하여 치료하고 있다. 그리고 ‘甚者從之’의 甚은 病情이 複雜하고 嚴重하다는 뜻이며 從은 藥性과 病的 假象이 서로 從함을 말한다.

이런 反治法의 運用에 매우 능한 의사로는 張仲景이 있다. 그의 저서인 『傷寒論』에는 이러한 反治法을 運用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먼저 ‘熱因熱用’(熱象이 있는데 熱한 藥을 사용함) 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少陰病에 下利清穀하

23) 傅貞亮. 內經講義. 中國.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93.

고 裏寒外熱하며 手足厥逆하고 脈微欲絶하며 身反不惡寒하고 其人面色赤하며 或腹痛거나 或乾嘔거나 或咽痛거나 或利止, 脈不出者는 通脈四逆湯主之라”고 하였다. 이는 身熱面赤의 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乾薑과 附子와 같은 重劑를 사용하여 陰盛格陽의 勢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寒因寒用’(寒象이 있는데 寒한 약을 사용함)한 경우를 살펴보면 “傷寒에 脈滑而厥者는 裏有熱也니 白虎湯主之라”고 하였다. 이는 表象에 手足厥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辛寒清熱한 白虎湯을 사용하여 裏熱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寒因寒用’(寒한 증상에 寒하는 藥을 사용함)한 경우는 “太陰之爲病은 腹滿而吐하고 食不下하며 自利益甚하고 時腹自痛”에 理中丸(湯)類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비록 腹滿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人蔘, 白朮, 乾薑, 甘草를 사용하여 溫中散寒, 健脾燥濕한 즉 腹滿과 吐利의 증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또 ‘通因通用’(通한 증상에 通하게 하는 藥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少陰病에 自利清水하고 色純青하며 心下必痛하고 口乾燥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湯라”한 경우가 있다. 自利清水에 도리어 大承氣湯을 사용하여 峻下시킴으로써 熱結傍流한 증상을 다스렸다. 傍流의 증상은 假이며 熱結한 것이 眞이므로 熱結이 下한 즉 傍流의 증상은 저절로 멎게 된다. 後人들이 反治法을 사용함에 있어 이러한 仲景의 例를 많이 본받았다. 이러한 네 가지 反治法은 실제 진단과 臨床上에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²⁴⁾

表 4. 反治法²⁵⁾

反治法	病例	方劑
熱因熱用	“少陰病, 下利清穀,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絶, 身反不惡寒, 其人面色赤,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 脈不出者.”	通脈四逆湯
寒因寒用	“傷寒, 脈滑而厥者,	白虎湯

24)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 1372.

	裏有熱也.”	
寒因寒用	如中焦脾胃陽氣不足, 出現腹脹滿, 疼痛, 脈弦 等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理中湯
通因通用	熱結旁流等病證, 如“少陰病, 自利清水, 色純青, 心下必痛, 口乾燥者, 急下之.”	大承氣湯

그리고 이러한 從治法의 結果에 대해 “其始則同하나 其終則異이니 可使破積하고 可使潰堅하며 可使氣和하니 可使必已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름지기 “必伏其所主하여 而先其所因하니라.” 즉 반드시 疾病의 本質, 原因에 초점을 두고 제거해야 함을 前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正治法과 反治法은 ‘治病求本’의 治療 原則에 대한 두 가지 相反되는 이론으로 보이나 실질상으로 따지면 이 또한 병의 本質은 겉에 드러난 病證과 相反되므로 反治法도 크게 보면 正治의 범주에 들어간다.²⁶⁾ 다시 말해 反治法은 正治法의 形式 上에 보충되는 바이며 질병의 本質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正治法과 反治法은 다르지 않다.

3) 正治法과 反治法 運用 時 유의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正治法과 反治法은 寒熱虛實의 眞假에 대해서 상세히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內經』에서는 “寒者熱之하고 熱者寒之라”, “盛則瀉之하고 虛則補之라”의 正治法과 “熱因寒用하고 寒因熱用하며 寒因寒用하고 通因通用”의 逆治法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正治, 反治의 두 가지 理法을 정확히 구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張介賓은 『類經·論治』에서 “愚按治有逆從者는 以病有微甚이오 病有微甚者는 以證有眞假也라 寒熱有眞假하고 虛實亦有眞假하니 眞者正治는 知之無難이어나와 假者反治는 乃爲難耳라”하였다.

25) 傅貞亮. 內經講義 中國.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94.

26) 類編黃帝內經.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찬위원회. 住民出版社. 2006. p. 725.

그리고 이어서 “陽證似陰이라 함은 火極似水라” 하여 陽盛格陰한 假寒證과 “陰證似陽이라 함은 水極似火라”하여 陰盛格陽한 假熱證, “至虛有盛候”의 假實證, “大實有羸狀”의 假虛證 등 다양한 표현을 列擧하면서 “有不可不辨其眞耳”, “世有不明眞假本末而曰知醫者는 余卽未敢許也라”²⁷⁾고 하였다. 이는 正治와 反治의 사용은 病證의 眞假를 判明하여 질병의 本質을 把握하고 假象에 미혹되지 아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 反治法과 反佐法

그리고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反治法과 反佐法에 관한 부분이다. 反治法 속에 反佐法의 의미가 포함된다는 說도 있으며,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하는 설도 있다.

일반적으로 反佐法이란 寒이 심할 때 溫熱藥 속에 小量의 寒涼藥을 넣어 佐藥으로 삼거나 熱藥을 차갑게 복용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반면 熱이 심할 때는 清熱寒涼藥 속에 小量의 溫熱藥을 佐藥으로 삼아 치료하거나, 冷藥을 뜨겁게 복용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劑 配合와 服藥 방법은 약물에 대한 거부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反佐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反佐法은 『素問·至眞要大論』의 “奇之不去면 則偶之하니 是謂重方이라 偶之不去면 則反佐以取之니 所謂寒熱溫涼이 反從其病也라”에서 나왔다. 王冰은 이에 대해 注釋하기를 “微小之熱은 爲寒所折하고 微小之冷은 爲熱所消이니와 甚大寒熱은 則必能違性者 爭雄하고 能與導氣者 相格하여 聲不同不相應하고 氣不同不相合하니 如是則且憚而不敢攻之라 攻之則病氣與藥氣 抗行하여 而自爲寒熱以關閉固守矣라 是以로 聖人이 反其佐以同其氣라”²⁸⁾하여 藥物 配伍에 있어 反佐를 말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反佐法에 대한 표현으로는 『素問·五常政大論』에서 “治熱以寒하되 溫而行之하고 治寒以熱하되 涼而行之니이다”고 하였다. 이는 寒熱이 서로 格拒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寒한 藥은 溫服하고 熱한 藥은 冷服하는 服藥에 있어서의 反佐法을 말하고 있다.

또한 『素問·至眞要大論』의 “熱因寒用 寒因熱用”에 대해 王冰, 馬蒔, 張介賓 등 많은 주석가들은 服藥에 있어서의 反佐法으로 해석하였다. “熱因寒用 寒因熱用”에 구절에 있어서 “塞因塞用 通因通用”의 문장 뜻에 근거하여 일치하도록 하여 현대 改訂版에 있어서는 “熱因熱用 寒因寒用”으로 바꾸어 보고 있으며, 모두 反治法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反治法과 反佐法의 관계에 대해서 古代의 醫家들의 說이 명확하지 않아 지금의 학자들 또한 여러 가지 관련 注釋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治法이다. 反治法은 假象을 排除하고 藥物은 반드시 疾病의 本質에 초점을 맞추어 약물을 사용하는데 반해, 反佐法의 藥物 或 方法은 一種의 緩衝作用으로 실제로는 病과 藥 사이의 格拒現象을 除去하여 主藥이 충분히 治療作用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²⁹⁾ 따라서 反治法과 反佐法은 치료 관점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

Ⅲ. 결 론

『內經』에서는 上述한 治療 原則 下에 具體的 治療理法으로 크게 네 가지 理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邪氣가 侵入함에는 깊고 얕음이 있으며 傳變에는 순서가 있고, 病位에는 表裏의 區分이 있다. 따라서 治療에任해서는 陰陽表裏內外를 세밀히 구분하여 각기 다른 영역에서 치료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表病과 裏病의 有無에 대한 診斷의 先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表病의 有無를 먼저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陰陽盛衰에 따른 寒熱溫涼의 症候에 대한 調和를 圖謀하였다. 그러나 寒熱의 樣相에 있어 實證과 虛證의 구별이 있으므로 반드시 具

27)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p. 330~331.

28) 王冰. 黃帝內經素問. 大星出版社. 影印本. p. 710.

29)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 1373.

體的인 病의 情況과 陰陽의 虛實에 關해 상세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扶正祛邪의 治療 原則 下에 補法과 瀉法의 運用을 제시하고 있다. 補法은 正氣(氣血)가 虛해진 部分에 對해 실시하며, 瀉法은 實한 邪氣를 除去하는 데 쓰인다. 그 구체적인 方法으로 補法에는 補氣, 益血, 滋陰, 壯陽 등이 있으며 瀉法에는 通氣, 散火, 逐水, 開鬱 등의 方法이 있다.

마지막으로 正治法과 反治法이 있는데, 正治法은 病性과 藥性이 서로 逆하는 것으로 病情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 사용되고, 反治法은 藥性과 病의 假象이 서로 從하는 것으로 病情이 비교적 複雜하고 嚴重한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나 둘 다 病情의 本質을 把握하고 除去함에 重點을 두고 있으므로 ‘治病求本’의 治療原則 下의 治療理法에 屬한다.

『內經』에서 제시하고 있는 治療 理法들을 종합해보면 여러 辨證法들 중에서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의 八綱辨證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關해 李梴의 『醫學入門·雜治賦』에는 “百病 難逃乎八要라 經曰 病有八要하니 不知其要면 病將安去오 表裏寒熱虛實邪正而已라”³⁰⁾라 하였고, 程國彭의 『醫學心悟·寒熱虛實表裏陰陽辨』에는 “病有總要하니 寒熱虛實表裏陰陽八字而已라 病情既不外此니 則辨症之法은 亦不出外라”³¹⁾하여 『內經』의 治療 理法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參考文獻

1. 金完熙. 韓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90.
2. 傅貞亮. 內經講義. 中國.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3.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4.
4. 王冰. 黃帝內經素問. 大星出版社. 影印本.

5. 王洪圖. 內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社. 2000.
6.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7. 李仲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8. 李梴.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9.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10. 張仲景. 金匱要略. 北京. 中國醫葯科技出版社. 1996.
11.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찬위원회. 類編黃帝內經. 住民出版社. 2006.
12. 程國彭. 吳批醫學心悟. 中國. 旋風出版社. 中華民國59年.
13. 程士德. 內經理論體系綱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社. 1992.
14. 周學海. 讀醫隨筆. 서울. 木과土. 2000.

30) 李梴.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 736.

31) 程國彭. 吳批醫學心悟. 中國. 旋風出版社. 中華民國59年. p. 16.